돌, 백일/ 회갑, 고희연/ 각종 모임행사
용정웨딩홀 · 뷔페
Tel : 031)533-4466 Fax : 031)536-4466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하오(好) 중앙출장뷔페 www.jawh.co.kr
중앙웨딩홀 뷔페
백일, 돌, 회갑, 고희연, 집들이, 예식, 개원식, 각종모임등
Tel. 031)536-1868, 2555

【주간】1990년 1월 15일 창간 ☎ 031-542-1506~7
Pocheon sinmun
제406호 2008년 3월 10일 월요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결정 '선거전 돌입'

한나라당, 김영우 내정에 공천신청자들 반발
통합민주당, 단수 후보지역 이번주 발표할 듯

지난 3월6일 한나라당이 공천자를 결정하고 이번주에 통합민주당 공천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3월6일 고조흥 현 국회의원을 탈락시키고 김영우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전 정책부팀장을 포천시 연천군 후보로 내정했다.

김영우 예비후보는 공천내정에 대해 "공천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현을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만큼 강한 한나라당, 힘있는 국회의원, 잘사하는 포천.연천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김영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 정부와 강한 인맥을 갖춘 사람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통합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도의원, 시군의원 및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예비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자로 내정되자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고조흥 현 국회의원과 박윤국 전 포천시장, 차상구 공인회계사 등 3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조흥 현 국회의원은 "현재로서는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면서 "공천 재심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것이고 변화 가능성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무소속 출마에 대해 "한나라당 포천연천 조직은 내가 만든 조직"이라면서 "8년간 포천연천을 장악해 왔고 그동안 인지도와 지지도를 감안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 출마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율도 한자릿수인 사람을 한나라당 간판을 걸고 나오면 무조건 된다는 썩어빠진 구태정치, 그동안 지역을 위해 발 벗고 뛴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고조흥 국회의원 측은 3월7일 포천,연천 당원회의회 당원, 광역 및 기초의원 일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10일에는 한나라당 포천.연천당원협의회 일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재심의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성명서에 당원협의회는 "이번 4.9총선 공천내정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와 공천심사위원회에 낙하산 공천을 배격하고 객관적인 공천재심의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당원, 당직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소속 출마예정인 박윤국 전 포천시장은 김영우 한나라당 공천내정에 대해 "공천심사가 마치 계심심사의 오만과 편견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전 포천시장과 현 국회의원을 배제한 한나라당 공천은 문제가 있고 포천연천 유권자가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시장은 "김영우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내정한 것은 고양이에게 수레를 끌어달라고 하는 격"이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이같은 한나라당 공천을 그대로 보고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이번 선거구도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선거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나라당 공천이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던 차상구 공인회계사 역시 김영우 예비후보 내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차상구 공인회계사는 "한나라당 공천 내정은 민심을 이반한 결정"이라면서 "공천기준을 당선가능성이라고 해 놓고 지지도가 가장 높은 차상구를 배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차 공인회계사는 "인지도와 지지도가 낮은 사람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한나라당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하고 "한나라당 공천 내정자로서는 박윤국 전 시장과 고조흥 현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통합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영우 예비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자로 확정된 게 아니고 재심이 요청되어 있다"면서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받아들이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심위원 2/3 이상을 김영우 내정자가 얻어야 공천자로 확정된다. 재심절차가 진행되면 차상구가 가장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 분위기와는 달리 통합민주당 장명재 예비후보 진영은 차분한 분위기다. 장명재 예비후보 진영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단수 후보지역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내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호남지역과 함께 일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장 예비후보 진영은 통합민주당 후보는 단수후보 지역이고 장명재 예비후보가 결점이 없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데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장명재 예비후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3자 혹은 4자 구도가 되더라도 박빙의 선거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총선은 지역보다는 전국 선거분위기가 좌우한다. 전국에서 통합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18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는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고조흥 현 국회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출마여부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조흥 의원의 출마여부에 따라 포천시연천군 선거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분석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채석장 불법행위 검찰 송치

포천시 일제점검 결과 불법 발견

포천시는 관내 채석장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당초 허가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를 자행한 창수면 가양리 C석재 외 3개 업체 대표자를 의정부지검에 사건송치 했다고 10일 밝혔다.

본 채석장은 수년전부터 채석허가를 받아 작업을 해왔으나 이번에 채석 연장허가 신청기간 중,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당초 허가도면을 검토하고,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해 현황 측량성과도를 제출토록 함에 따라 불법사항을 확인했다.

불법내역은 군내면 하성북리 A기업(대표 L씨) 12,008㎡, 창수면 가양리 B석건(대표 H씨) 1,864㎡, 창수면 가양리 C석재(대표 K씨) 1,612㎡, 영중면 거사리 D석재(대표 K씨) 926㎡로 확인 되었으며, 조사 확인된 불법지에 대하여는 의정부지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송치를 했으며 행정상으로는 일부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이번에 한하여 사법조치하고 원상복구를 했지만 추후 불법사항이 재발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채석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국도변에서 가시되어 자연경관이 저해되는 채석장에 대하여는 중간복구를 5월말까지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사랑카드 납부 큰 호응

지방세와 세외수입 3개월간 무이자 납부

포천시는 지방세 현금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들의 납부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2000년부터 ○○신용카드사와 '抱川사랑카드'에 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여 5만원 이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언제든지 3개월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 이익과 혜택을 주고 있어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포천사랑카드'에 약정을 추가하여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매년 안정적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2008년 2월말 현재 3000여만원의 복지기금을 조성했으며, 이 기금은 열악한 예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 청소년 장학기금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를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하고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꾸준히 연구·노력한 결과"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질 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포천사랑카드' 가입신청 및 문의는 포천시청 세정과 징수담당(031-538-2193~2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㊺

조직개편안 공직사회 '술렁'

市관계자, 초안에 불과 개편폭 결정안돼

포천시가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력운영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밝히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포천시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직사회는 현행 직제만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담당부서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개편을 하게 되면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개편을 하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행 직제만으로도 얼마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포천시 조직은 본청 2담당관, 3국18과로 구분되어 있다. 또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로 수도사업소와 포천반월아트홀, 1읍11개면2개동이다. 포천시의회 사무국 인원까지 포함해 포천시 공무원 숫자는 총 825명이다.

공무원 숫자는 2003년 710명이었던 것이 2007년말까지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16.2%가 증가했다.

포천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현행 행정조직이 그때 그때 생긴 조직구조로 인해 중복된 기능이 많고 직렬불부합으로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읍면동 기능을 본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인력배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포천에코디자인시티 추진과 포천항공, 광역철도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화시킬 필요가 있고 업무성격상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는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인력 배정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행정의 운영을 위한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조직개편은 부서별 기능을 통합, 강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정책의 일관성 확보해 예산낭비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조직개편 초안에 의하면 포천시가 추진해 온 포천신도시 사업과 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 포천항공 및 광역철도 유치사업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미래기획팀 신설이다. 또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분야와 개발민원 분야 기구는 상당부분 약화되는 모양새다.

행정기구 개편안은 신규 행정업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가지고 부서별 명칭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와 민원인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 인원은 그대로 두거나 감축하면서 행정수요 많지 않는 부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공직사회 반응이다.

또한 공직사회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무감사담당관 신설한다는 것은 자체감사 기능이 다른 기관 감사에 비해 약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반응이다.

포천시 모 공직자는 "미래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T/F팀을 정식기구에 포함시켜 기구개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현재 진행중인 대형프로젝트 사업 전부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있다고 본다. 기구개편에 앞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폐기해야 할 사업, 그리고 보류해야 할 사업을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행정기구 개편은 민원현장 중심으로 행정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에 나온 초안은 그렇지 못하고 부서간 편중현상이 심하다"면서 "요즘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2-3명이 업무에 시달리는데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부서는 인력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 초안을 만들어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을 뿐 구체적인 개편안은 마련된 게 아니다"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업무가 중복되는 부서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조직개편 폭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국내최초 "우드펄프(곤죽)" 개발 성공

독특하고 다양한 특수무늬 친환경적인 가구

Yu-Sung C.N.C Industry '우드펄프(곤죽)개발 품평회'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해오던 곤죽물질을 유성 C.N.C 산업만의 특수한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입제품(이태리)보다 탁월한 품질을 자랑하는 이 제품 품평회에 참석해 제품의 우수성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일동-

일시 : 2008년 3월 15일 토요일(12시) 장소 : 유성 C.N.C 산업 본사

생산품목 | * C.N.C 루타가공 * 랩핑몰딩 가공 * 맴브래인가공 * 대형몰다가공 * 자동기능 가공 * 곤죽가공 * 도장 * 전사 * 엣지

유성 C.N.C 산업
본사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1149
Tel. 031-544-4045~6, 544-6725
Fax. 031-544-8313 H.P. 011-237-4045